

《훈민정음》 해례본의 초성자, 중성자 도표식 분류 대안*

김슬옹**

<차 례>

1. 머리말
2. 초성자 분류 맥락과 도표식 분류
3. 중성자 분류 맥락과 도표식 분류
4. 맺음말

1. 머리말

《훈민정음》(1446/1940)¹⁾ 해례본(이하 ‘해례본’)은 초성자와 중성자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다양한 분류 맥락과

* 이 논문은 “김슬옹(2017), 「《훈민정음》 해례본의 초성자, 중성자 다중 분류 맥락과 의미」, 『45회 한말연구학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2.10)』, 한말연구학회 (토론: 김정호), 19-34쪽”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심사위원님들과 정우영 교수님의 날카로운 비판이 큰 도움이 되었기에 감사드린다. 2017년 발표 논문을 이제서야 정식 논문으로 게재하는 것은 필자의 《훈민정음》 해례본 연구의 박사학위 과정(김슬옹, 2020)과 겹쳤기 때문이다. 해례본 접근 관점에 대해서는 김슬옹(2020)에 따른다.

** 세종국어문화원 원장

1) ‘《훈민정음》(1446/1940)’은 1446년에 간행된 초간본이 1940년에 간송 전형필이 소장한 간송본을 의미한다. 간송본은 앞 두 장이 채구·보수된 것으로 간송본은 2015년에 복간되었다.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훈민정음 문자뿐만 아니라 해례본 이해와 교육의 처음과 끝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이 글은 분류 체계를 도표로 어떻게 도식화할 것인가를 다룬 것이다.²⁾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초성자와 중성자는 다양한 층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그 양상과 의미는 달라진다. 분류는 일반적으로 표 방식으로 정리되거나 그런 표 방식의 교육용 자료로 활용된다. 표는 지식 정리나 교육 전달 모두에 매우 유용한 방식이다. 왜냐하면 표는 분류 기준을 통해 분류 과정과 결과를 한눈에 이해하게 해주기 때문이다.³⁾

그런데 해례본 관련 2차 문헌들이나 교과서 관련 문헌에서 설정한 기본 분류(표)가 해례본의 내용이나 의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논문의 핵심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례본에 근거하여 창제 원리와 정신을 보여주는 분류 체계를 해례본 내용 전달과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표로 제시한다. 해례본에는 표 형식이 없으므로 표는 더욱 유용한 해례본 이해와 교육 양식이 된다.

둘째, 분류 체계에 따른 용어 설정을 정확히 한다. 분류는 일정한 기준의 분석 체계를 전제로 하거나 목표로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기준’은 분류 대상에 대한 관점이자 분류 의미를 드러내 준다. ‘기준’은 흔히 특정

2) 이 논문은 《훈민정음》 해례본 교육을 전제로 하거나 목표로 삼는 것이지만 엄격하게 교육과정을 설정하거나 교과서 분석을 다루지는 않았다. 그런 교육의 바탕이 되는 일반적 관습의 바탕 문제를 다룬 것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검인정 교과서는 해례본 전체를 다룬 이 논문과는 달리 해례본 일부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따로 다룬 논제이다.

3) 어느 심사위원께서 “훈민정음 28자의 제자 및 운용 원리의 핵심을 학습하는 것과는 달리 해례본의 분류 문제와 양상을 이와 같은 표로 만들어 학습하는 것은 학습자에게는 암기해야 할 또 다른 대상을 추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해 주셨다. 표 양식은 교육 측면에서 보면, 암기에 유용한 양식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체계적인 이해에 더 유용한 양식이다. 더욱이 해례본처럼 다양한 분류 체계가 중층적으로 구성된 텍스트 교육을 위해서는 거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해례본 해설과 교육용 2차 문헌에서 표가 빠진 사례는 거의 없는 것을 보면 그러한 점을 잘 알 수 있다.

용어와 그 용어의 개념 전략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기준용 용어 설정은 분류의 의미를 좌우한다.

이런 분류 전략을 표 구조를 통해 정확히 파악해 보자는 것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초성자와 중성자로 나눠 전체 흐름을 먼저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은 해례본 기호가 아니라 일반적인 또는 필자의 분류 전략을 담은 기호이다.

[표 1] 《훈민정음》 해례본에서의 초성자, 중성자 배열 종합

갈래	출처		기준	배열
초성자	정음 예의	예의	아음·설음·순음·치음·후음·반설음·반치음/전창·전탁·차창·불청·불탁	ㄱ(ㄲ)ㅋㅇ/ㄷ(ㄸ)ㅌㄴ/ㅂ(ㅃ)ㅍㅇ/ㅈ(ㅉ)ㅊㅅ(ㅆ)/ㅇㅎ(ㅎ)ㅇ/ㄹㅇ/ㄷ(ㄸ) *괄호는 문자 표기 자체는 나오지 않고 병서라 하여 한자 예만 들어놓음.
		제자해	상형기본자(아설순치후)/가획자/이체자	ㄱㄴㅇㅅㅇ/ㅋㄷㅌㅍㅈㅊㅆㅎㅇ/ㅇㄹㅇ *문맥 재구성: ㄱㅋ/ㄴㄷㅌ/ㅇㅂㅍ/ㅅㅆㅊ/ㅇㅎㅇ/ㅇㄹㅇ
	정음해례	초성해	아음·설음·순음·치음·후음·반설음·반치음 *아설순치후 내부: 전창·차창·전탁·불청·불탁	ㄱㅋㄲㅇ/ㄷㅌㅌㄴ/ㅂㅍㅃㅇㅅㅆㅆㅆㅆㅆ/ㅇㅎ ㅎㅇ/ㄹㅇ
		중성해	8중성/아음·설음·순음·치음·후음·반설음 *실제 용례에서는 반치음(△)도 쓰임(9중성법)	ㄱㅇㄷㄴㅂㅇㅅㄹ
		합자해	*합용병서: ㅅ-, ㅂ-, ㅃ- *각자병서: ㅎ, ㅇ *연서	합용병서: ㅅ, ㅂ, ㅃ 각자병서: ㅎ, ㅇ 연서: (병, 령) *설명만 나옴
		용자례	아음·설음·순음·치음·후음·반설음·반치음	ㄱㅋㅇ/ㄷㅌㄴ/ㅂㅍㅇ/ㅈㅆㅊㅅ/ㅎㅇ/ㄹㅇ *ㅎ 용례는 없음
중성자	정음 예의	예의	상형기본자/초출자/재출자	ㅇ ㅡ ㅣ / ㅅ ㅊ ㅊ ㅊ / ㅃ ㅆ ㅆ ㅆ
		정음해례	제자 원리: 상형기본자/초출자/재출자	ㅇ ㅡ ㅣ / ㅅ ㅊ ㅊ ㅊ / ㅃ ㅆ ㅆ ㅆ
	오행: 초출자/재출자/상형기본자		ㅅ ㅊ ㅊ ㅊ / ㅃ ㅆ ㅆ ㅆ / ㅇ ㅡ ㅣ	
	결구: 상형기본자/초출자/재출자		ㅇ ㅡ ㅣ / ㅅ ㅊ ㅊ ㅊ / ㅃ ㅆ ㅆ ㅆ	

중성자	정음해례	중성해	상형기본자/초출자/재출자 /이자합용자/기본자의 상합자/이자합용자의 상합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자해	*초성자와 합자 방식 - 상하 - 좌우 * · - 가 에서 시작하는 중성자	• - - - - - - - - 기! (!) *용례만 표기
		용자해	상형기본자/초출자/재출자	• - / - - - - / - - - -

이 글에서의 분류는 오로지 해례본 자체 설명과 내적 논리에만 따른다. 따라서 흔히 중성자 배열의 배경이기도 한 ‘하도, 낙서’ 원리 등은 해례본에 언급된 것은 아니므로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다만 배열 방식을 표로 재구성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이므로 표에 따른 분류 기준 용어와 입체 배열에는 필자의 관점과 전략이 반영되어 있다.

초성자, 중성자 분류는 훈민정음 관련 거의 모든 논저에서 다루고 있지만, 해례본 전체 분류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관련 논의는 관련 분야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2. 초성자 분류 맥락과 도표식 분류

초성자 분류는 크게 보면 ‘예의’에서의 음운학 중심의 분류(초성해, 중성해, 용자해 포함)와 제자해에서의 제자 원리에 따른 분류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예의에서의 분류는 기본적으로는 제자 원리에 따른 분류가 전제되어 있다.

2.1. ‘정음편’에서의 음운학 중심의 1차 배열과 초성해, 중성해, 용자해의 분류

초성자의 1차 분류는 ‘정음편’에서 이루어졌다.

(1) 정음편 훈민정음

ㄱ. 牙音. 如君字初發聲, 並書. 如呌字初發聲 [정음1ㄱ:7-정음1ㄴ:1어제예의]⁴⁾

ㅋ. 牙音. 如快字初發聲 [정음1ㄴ:2_어제예의]⁵⁾

ㆁ. 牙音. 如業字初發聲 [정음1ㄴ:3_어제예의]

ㄷ. 舌音. 如斗字初發聲, 並書. 如覃字初發聲 [정음1ㄴ:4-5_어제예의]

ㅌ. 舌音. 如吞字初發聲 [정음1ㄴ:6_어제예의]

ㄴ. 舌音. 如那字初發聲 [정음1ㄴ:7_어제예의]

ㅍ. 脣音. 如鶯字初發聲, 並書. 如步字初發聲 [정음2ㄱ:1-2_어제예의]

ㅂ. 脣音. 如漂字初發聲 [정음2ㄱ:3_어제예의]

ㅃ. 脣音. 如彌字初發聲 [정음2ㄱ:4_어제예의]

ㅈ. 齒音. 如卽字初發聲, 並書. 如慈字初發聲 [정음2ㄱ:5-6_어제예의]

ㅊ. 齒音. 如侵字初發聲 [정음2ㄱ:7_어제예의]

ㅅ. 齒音. 如戍字初發聲, 並書. 如邪字初發聲 [정음2ㄴ:1-2_어제예의]

ㅇ. 喉音. 如搯字初發聲 [정음2ㄴ:3_어제예의]

ㅎ. 喉音. 如虛字初發聲, 並書. 如洪字初發聲 [정음2ㄴ:4-5_어제예의]

ㆁ. 喉音. 如欲字初發聲 [정음2ㄴ:6_어제예의]

ㄹ. 半舌音. 如閏字初發聲 [정음2ㄴ:7_어제예의]

ㄷ. 半齒音. 如穰字初發聲 [정음3ㄱ:1_어제예의]

○ 連書脣音之下, 則爲脣輕音. [정음3ㄴ:6-7_어제예의]

이 분류는 세종이 직접 제시한 최초 분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루 알려진 대로 세종은 1443년 12월에 예의⁶⁾를 완성하고 여기에 정음해

4) 병서자는 행을 달리하였지만, 기본자 28자의 위상을 좀 더 잘 드러내기 위해 이 글에서는 선행절에 합쳐 편집하였다. 물론 이 부분은 진본이 아니므로 별행으로 처리했는지 선행절에 합쳐 있는지 논란이 된다. 필자는 별행설의 대표 논의인 정우영(2018)을 지지하지만, 여기서는 편집의 편의에 따라 한 줄로 이어서 처리하였다. 별행이 아닌 한 줄 방식은 백두현(2018)에서는 병서 뒤에 두점으로 처리하였다. 한재영 외(2017)의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정본 제작 연구』, 문화재청.”에서는 두 안을 복수로 제시하였다.

5) “[정음1ㄴ:2_어제예의]”와 같은 출처 방식은 해례본 내용을 정확한 출처 없이 인용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비판하고 필자가 제안한 방식이다. 김슬옹(2017), 김슬옹(2017/2020) 3부 참조.

6) ‘예의’라는 용어는 1446년 《훈민정음》 해례본 정인지서에서 “癸亥冬. 我殿

례를 첨부해 1446년에 해례본을 발간했다. 그렇다면 1443년의 예의를 1446년 해례본에서 수록한 셈인데 실제 예의와 해례본의 정음편이 같았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⁷⁾ 일반적인 책 편집과 교정 과정으로 본다면 약간의 수정은 있었을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을 세종이 주관하여 편집 집필한 것이므로 일단 기본 내용은 같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훈민정음 창제자 세종의 최초 분류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 초성자 분류를 글자만으로 나열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 (2) <ㄱ> <ㅋ> <ㆁ> <ㄷ> <ㄸ> <ㄴ> <ㄹ> <ㄷ>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ㅊ> <ㅌ>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ㅇ>
- (* < > 안 초성자는 설명은 나오지만 글꼴로 노출되지 않음)

분류 기준과 명칭이 나오지는 않지만, 제자해 용어에 근거하여 정음편 분류체계를 가장 정확히 드러낸다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 초성 17자와 각자병서, 순경음 글꼴과 음가 표시자 (<> 글꼴 드러나지 않음)

갈래	전청(全淸)	전탁(全濁)	차청(次淸)	불청불탁 (不淸不濁)	순경음 (脣輕音)
아음(牙音)	ㄱ(君)	<ㄱ>(𪛇)	ㅋ(快)	ㅇ(業)	
설음(舌音)	ㄷ(斗)	<ㄷ>(𪛈)	ㅌ(吞)	ㄴ(那)	
순음(脣音)	ㅁ(擘)	<ㅁ>(步)	ㅃ(擘)	ㅍ(彌)	<ㅁ>
치음(齒音)	ㅈ(卽) ㅊ(戍)	<ㅈ>(慈) <ㅊ>(邪)	ㅉ(侵)		
후음(喉音)	ㅇ(掬)	<ㅇ>(洪)	ㅎ(虛)	ㅇ(欲)	
반설음(半舌音)				ㄹ(閏)	
반치음(半齒音)				ㄷ(穢)	

下創制正音二十八字，略揭例義以示之，名曰訓民正音。[정음해례 27ㄴ:4-6 정인지 서]"(세종실록 1446.9.29. 재수록)라고 '-예의-'라고 한 것에 유래한 것임을 홍기문(1946: 65-66)에서 밝힌 바 있다.

7) 이동림(1975)과 강창석(2014)에서처럼 최세진의 훈몽자회범례에 실린 <언문자모>를 1443년 12월의 자료로 본다면, 이것이 세종의 최초 분류가 될 것이다. 홍현보(2019) 등에서는 1443년 실록 기록은 실제로는 1446년 이후의 편집 기록이므로 일부 용어는 수정·보완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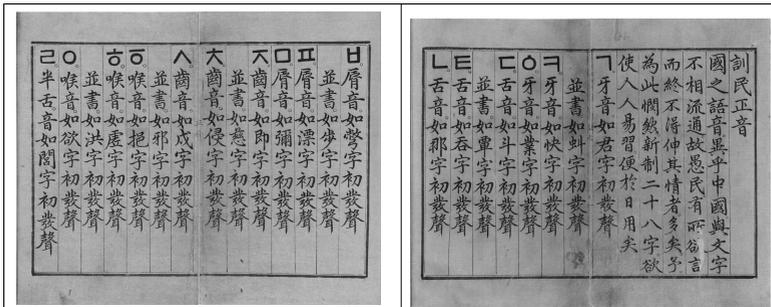
분류 의미와 실체를 좀 더 정확하게 부여하기 위해 필자가 제시한 도표에서는 글꼴을 집자 방식으로 해례본에서 그대로 따왔으며 병서자는 노출되지 않았으므로 < >로 처리하였다.

‘정음1ㄱ-정음2ㄴ’까지는 후대에 재구보수된 것이므로 실제 원형 글꼴은 다음 사진과 같이 차이가 난다. 초성자는 반시옷만 원본 글꼴이고 중성자는 모두 원본 글꼴이다.

[사진 1] 간송본 가운데 진본 글꼴 (정음 3ㄱㄴ)



[사진 2] 간송본 가운데 후대에 보사된 글꼴 (정음 1ㄱ-2ㄴ)



(6) 以二十八字而轉換無窮，簡而要，精而通. [정음해례28ㄱ:1-2_정인지서] (스물여덟자로 끝없이 바꿀 수 있어, 간결하면서도 요점을 잘 드러내고, 정밀한 뜻을 담으면서도 두루 통할 수 있다.)

(5)의 실록 기록에서 드러난 28자의 핵심 가치를 그대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6)의 해례본 정인지서 기록이다. 28자가 기본이 되어 수많은 글자가 생성되지만 무척 간결하고 어떤 뜻도 다 담아 자세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병서자 6자는 노출시키지 않음으로써 28자의 위상을 더 명확히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⁹⁾

병서자까지 포함하면 모두 23자로 제자해 설명을 수용하여 분류한다면 [표 3]과 같은 표가 생성될 것이다.¹⁰⁾ 이러한 표 구조는 해례본 서술 차례와 일치하는 긍정성이 있으나 동국정운식 한자음 병기는 해례본의 실체와 맞지 않는다.

해례본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전략이라면 당연히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없다. 다음 해례본 초성해 ‘快, 蚘’의 한자음 표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해례본에서는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엄격히 따르지 않았다.

(7) 가. 快字初聲是^ㄱ, ^ㄱ與^ㅅ而爲^快. [정음해례15ㄱ:1_초성해]

나. 蚘字初聲是^ㄱ, ^ㄱ與^ㅅ而爲^蚘. [정음해례15ㄱ:1-2_초성해]

1459년에 나오는 월인석보 속 언해본에서 동국정운식 한자음대로 표기 되어 흔히 [표 3]처럼 제시하는 것이 관습화되었다. 그러나 해례본 내

9) 정우영(2018: 58)에서는 병서자 글꼴을 노출시키지 않은 근거를 “新制二十八字의 조건에 들지 않으므로 총론의 원칙에 따라 초성 23자모 가운데 전탁 6자의 경우는 한글자형을 노출할 수 없다.”라고 보았고 필자도 동의한다.

10) 이런 식의 분류는 일반적인 고전적 분류이기는 하나, 한자음 표기까지 병기하고 최근 사범대 학습자들이 두루 활용하는 자료라 인용한다.

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런 예시 방법을 지양하고 [표 4]처럼 훈민정음 해례본 표기음을 적용해야 한다.¹¹⁾ 물론 박창원(2005: 30)에서처럼 “那(나: 낭)”와 같이 병기할 수는 있지만 그 또한 해례본 방식은 아니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만일 기본자를 분리하는 방식이라면 [표 5]와 같은 표가 바람직하다.

[표 3] 초성 23글자의 모양과 소리 (나찬연, 2012: 69)

	전청(全淸)	전탁(全濁)	차청(次淸)	불청불탁(不淸不濁)
아음(牙音)	ㄱ(君, 군)	ㄱ(虬, 궁)	ㅋ(快, 행)	ㅇ(業, 업)
설음(舌音)	ㄷ(斗, 둥)	ㄷ(覃, 땀)	ㅌ(吞, 툰)	ㄴ(那, 낭)
순음(唇音)	ㅂ(擘, 뵤)	ㅂ(步, 뵤)	ㅍ(漂, 푼)	ㅁ(彌, 밍)
치음(齒音)	ㅈ(卽, 즉) ㅊ(戍, 쑤)	ㅉ(慈, 쑤) ㅊ(邪, 쌩)	ㅊ(侵, 침)	
후음(喉音)	ㅇ(挹, 읍)	ㅎ(洪, 홍)	ㅎ(虛, 형)	ㅇ(欲, 욕)
반설음(半舌音)	ㄹ(閏, 령)			
반치음(半齒音)	ㄷ(穰, 상)			

[표 4] 초성 17자와 각자병서 6자의 글꼴과 발음

갈래	전청(全淸)	전탁(全濁)	차청(次淸)	불청불탁(不淸不濁)
아음(牙音)	ㄱ(君, 군)	ㄱ(虬, 궁)	ㅋ(快, 쾌)	ㅇ(業, 업)
설음(舌音)	ㄷ(斗, 두)	ㄷ(覃, 땀)	ㅌ(吞, 툰)	ㄴ(那, 나)
순음(唇音)	ㅂ(擘, 뵤)	ㅂ(步, 뵤)	ㅍ(漂, 표)	ㅁ(彌, 미)
치음(齒音)	ㅈ(卽, 즉) ㅊ(戍, 쑤)	ㅉ(慈, 쑤) ㅊ(邪, 쌩)	ㅊ(侵, 침)	
후음(喉音)	ㅇ(挹, 읍)	ㅎ(洪, 홍)	ㅎ(虛, 허)	ㅇ(欲, 욕)
반설음(半舌音)	ㄹ(閏, 려)			
반치음(半齒音)	ㄷ(穰, 상)			

11) 그렇다고 해례본의 표기음을 현실음으로 보기도 어렵다. 해례본 간행 시점은 『동국정운』 완성(1448) 전이었으므로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일종의 현실음과 동국정운식 한자음 적용의 과도기적 한자음 표기 방식이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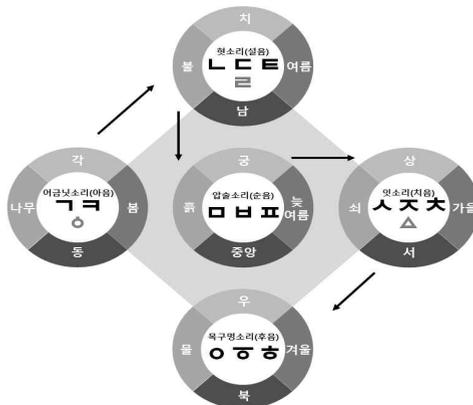
[표 5] 초성 17자와 각자병서 6자의 글꼴과 발음

갈래	초성 기본자			병서자
	전청(全淸)	차청(次淸)	불청불탁 (不淸不濁)	전탁(全濁)
아음(牙音)	ㄱ(君, 군)	ㅋ(快, 쾌)	ㅇ(業, 업)	ㄱ(虬, 규)
설음(舌音)	ㄷ(斗, 두)	ㅌ(呑, 툐)	ㄴ(那, 나)	ㄷ(覃, 탐)
순음(唇音)	ㅂ(淸, 별)	ㅍ(漂, 표)	ㅁ(彌, 미)	ㅂ(步, 뽀)
치음(齒音)	ㅈ(卽, 즉) ㅊ(戍, 술)	ㅊ(侵, 침)		ㅈ(慈, 췌) ㅊ(邪, 췌)
후음(喉音)	ㅎ(挾, 흠)	ㅎ(虛, 허)	ㅇ(欲, 욱)	ㅎ(洪, 흥)
반설음(半舌音)			ㄹ(閏, 려)	
반치음(半齒音)			ㄷ(穢, 상)	

‘전청, 차청, 불청불탁, 전탁’이란 용어는 ‘정음편’에 나오지 않지만 ‘정음해례’에 준해 분류 용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여기서는 제자 원리보다 성음의 청탁 기준에 따른 음운 특성을 1차 기준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조음 위치에 따른 분류는 제자해에서 중국 운서의 5음 체계와 같은 오행 순서에 따랐다. 그러나 해례본의 실제 분류는 음운 특성을 먼저 고려하여 반설음과 반치음은 따로 설명하고 있다. 7음 체계이다. 제자해 설명을 근거로 오행 중심의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오행’에 따른 초성 배열(김슬옹, 2018: 53)



중성해에서는 8중성법에 따라 ‘아음·설음·순음·치음·후음·반설음’ 순서에 따라 “ㄱㅇㄷㄴㅂㅅㅇ”와 같이 배열했다. 실제 용례에서는 “**옛** **의** **갓**” 정음해례18 ㄱ:6_중성해”와 같이 반치음(△)도 쓰였으므로 엄격히 말하면 9중성법이다.

용자례에서의 초성 분류는 ‘예의’에서의 초성자 분류 전략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다. 다만 전탁자를 배제하였고 나머지 분류 체계는 ‘ㅇ’자가 빠진 것 외는 그대로다. 다만 기본자는 아니지만 토박이말에서 쓰였던 ‘빙’만 추가되었는데 이는 정음편 순경음자 설명을 따른 것이다.

[표 6] 용자례에서의 초성자 순서와 낱말 용례

소리 특성 조음점	초성 기본자			운용자
	전칭	차칭	불칭불탁	전칭
아음	ㄱ 감(栴), 골(蘆)	ㅋ 우케(未春稻), 콩(大豆)	ㅇ 러울(癩), 서에(流涕)	
	ㄷ 뒤(茅), 담(牆)	ㅌ 고티(蘭), 두텁(蟾蜍)	ㄴ 노로(筭), 남(猿)	
순음	ㅂ 볼(臂), 벌(蜂)	ㅍ 파(葱), 풀(蠅)	ㅍ 외(山), 마(薯蕷)	빙 사빙(蝦), 드빙(瓠)
	ㄷ 자(尺), 조히(紙)	ㅌ 체(籠), 채(鞭)		
치음	ㅅ 손(手), 심(島)			
		ㅎ 부형(鶻鷲), 힘(筋)	ㅇ 비육(鷄雛), 부얌(蛇)	
반설음			ㄹ 무뤼(雹), 어름(氷)	

만치음			△	
			아수(弟), 니시(辮)	

2.2. 제자해 분류와 의미

제자해에서는 먼저 상형기본자를 설명하고 가획자와 이체자 순으로 설명하고 있다. 먼저 상형기본자인 “ㄱ ㄴ ㄹ ㅁ ㅇ / ㆍ 一 |”를 무엇으로 부르느냐가 문제다. 기존 관례([표] 7, 8)대로 ‘기본자’라 부를 경우 초성 기본자 17자, 중성 기본자 11자와 혼동이 된다.¹²⁾

[표 7] 자음자 분류표 강신항(1987/2003, 수정증보: 59)

五音	基本字	象形 内容	加劃字	異其體字
牙	ㄱ	象舌根閉喉之形	ㅋ	ㅇ
舌	ㄴ	象舌附上腭之形	ㄷ ㅌ	ㄹ
脣	ㅁ	象口形	ㅂ ㅃ	
齒	ㅇ	象齒形	ㅈ ㅉ	△
喉	ㅇ	象喉形	ㅎ	

[표 8] 모음자 분류표 강신항(1987/2003, 수정증보: 59)

陰陽別	基本字	字形	象形 内容
陽	ㆍ	圓	象乎天
陰	一	平	象乎地
陽		立	象乎人

그래서 필자는 김슬옹(2011)에서 ‘원형자’라는 말을 썼으나 ‘원형’이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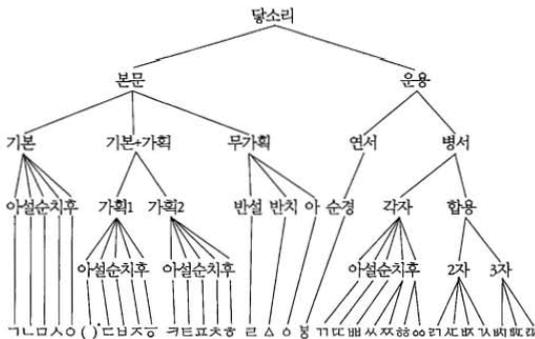
12) 강신항(1987/2003, 수정증보: 56)에서의 모음자 분류표에서는 ‘|’를 ‘陰’으로 표시했으나 ‘陽’의 단순 오타인 듯하다. ‘|’ 모음자는 실제 양성과 어울려 ‘陽’으로 할 수 있지만, 해례본 취지에는 어긋난다.

말이 모호해서 쓰지 않기로 했다. 그렇다고 나찬연(2012)에서처럼 ‘상형자’라고 할 경우 나머지 가획자와 이체자는 상형자가 아닌 것으로 오해를 줄 염려가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해례본에서는 이른바 이체자 ‘ㄹ, ㅅ’조차 상형임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가획자 또한 상형자로 보아야 한다. 굳이 차이가 있다면 상형의 정도차 또는 상형의 질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상형기본자’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안하고자 한다.¹³⁾

(12) ㄱ ㄴ ㄹ ㅁ ㅂ ㅇ / ㅋ ㆁ ㆅ ㅈ ㆆ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 ㆗ ㆘ ㆙ ㆚ ㆛ ㆜ ㆝ ㆞ ㆟ ㆠ ㆡ ㆢ ㆣ ㆤ ㆥ ㆦ ㆧ ㆨ ㆩ ㆪ ㆫ ㆬ ㆭ ㆮ ㆯ ㆰ ㆱ ㆲ ㆳ ㆴ ㆵ ㆶ ㆷ ㆸ ㆹ ㆺ ㆻ ㆼ ㆽ ㆾ ㆿ ㆿ

다음으로 그간 관습적으로 분류해온 [표 9]와 같은 분류표의 문제는 [그림 2]처럼 이체자가 가획자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하거나 그렇게 보이게 한다는 것이다.

[그림 2] 이체자를 ‘무가획자’로 분류한 사례(김석득, 2019: 82쪽)



13) 한 심사의원께서 “‘상형기본자’라고 하면 ‘상형’이 아닌 다른 차원의 기본자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한다. 기본자 자체가 상형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굳이 기본자의 이름에 포함해 명명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을 주셨다. ‘상형기본자’는 상형을 위한 기본자라는 의미이고, 이 용어는 기존 분류에서 ‘기본자’ 또는 ‘상형자’로 불려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담았다.

[표 9] 초성 17자의 제자 원리에 따른 일반적인 배열표

갈래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아음(牙音)	ㄱ(君, 군)	ㅋ(快, 쾌)	ㅇ(業, 업)
설음(舌音)	ㄴ(那, 나)	ㄷ(斗, 두) ㅌ(呑, 툐)	
순음(脣音)	ㅁ(彌, 미)	ㅂ(擘, 별) ㅍ(漂, 표)	
치음(齒音)	ㅇ(戍, 순)	ㅈ(卽, 즉) ㅊ(侵, 침)	
후음(喉音)	ㅇ(欲, 욕)	ㅎ(抱, 후) ㅇ(虛, 허)	
반설음(半舌音)			ㄹ(閏, 려)
반치음(半齒音)			ㄷ(穰, 상)

따라서 이체자 분류 문제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관련 기술은 다음과 같다.

- (13) ㄴ而ㄷ, ㄷ而ㅌ, ㅁ而ㅂ, ㅂ而ㅍ, ㅇ而ㅈ, ㅈ而ㅊ, ㅇ而ㅎ, ㅎ而ㅇ, 其因聲加畫之義皆同, 而唯ㅇ爲異. [정음해례1ㄴ:7-2ㄱ:1-2 제자해] (ㄴ에서 ㄷ, ㄷ에서 ㅌ, ㅁ에서 ㅂ, ㅂ에서 ㅍ, ㅇ에서 ㅈ, ㅈ에서 ㅊ, ㅇ에서 ㅎ, ㅎ에서 ㅇ이 됨도 그 소리로 말미암아 획을 더한 뜻은 같으나, 오직 ㅇ만은 다르다.)
- (14) 半舌音ㄹ, 半齒音ㄷ, 亦象舌齒之形而異其體, 無加畫之義焉. [정음해례2ㄱ:2-4 제자해] (반혓소리글자 ㄹ, 반잇소리글자 ㄷ도 또한 혀와 이의 모양을 본떴으나, 그 짜임새를 달리해서 만들었기에 획을 더한 뜻은 없다.)

정우영(2016: 65)에서는 ‘이체’에 대한 모든 논의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뒤, “반설음 ㄹ과 반치음 ㄷ도 또한 (ㄹ는) 혀[舌], (ㄷ는) 이[齒]의 모양을 본떴으나, 그(=ㄹ, ㄷ음의) ‘체=본성(本性)’이 (각각 ㄷ-ㅌ, ㅈ-ㅊ와) 달라서 여기(=ㄹ, ㄷ음)에는 ‘(소리의 세기에 따라) 획을 더한 이치’[가획자의의]가 없다(=들어있지 않다.)”라고 최종 해석형 번역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동일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ㅇ’자도 이체자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 이체자의 공통점과 차이점

갈래	공통점	차이점	근거 자료
ㅇ	이체자	상형기본자 계열이 다름	其因聲加畫之義皆同, 而唯 ㅇ 爲異. [정음해례1 ㄴ:7-2ㄷ:1-2_제자해]
ㄹ, ㅅ		상형기본자는 같지만 가획하는 원리가 한 획이 더해지면 세지는 일반 원리와 다름	半舌音 ㄹ, 半齒音 ㅅ, 亦象舌齒之形而異其體, 無加畫之義焉. (반혓소리글자 ㄹ, 반잇소리글자 ㅅ도 또한 혀와 이의 모양을 본떴으나, 그 짜임새를 달리해서 만들었기에 획을 더한 뜻은 없다.) [정음해례2ㄷ:2-4_제자해]

이상의 맥락으로 보면, ‘ㅇ, ㄹ, ㅅ’를 이체자로 분류하는 데 문제는 없어 보인다. 곧 ㅇ는 획을 더하여 만들었지만 상형기본자를 후음에서 가져왔으므로 같은 계열의 가획자와는 달리 획을 더하면 소리가 세어지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고, ‘ㄹ, ㅅ’은 각각 혀와 이를 상형한 것에 바탕을 두고 상형기본자에 획을 더했지만 그 짜임새가 다르므로 일반 가획과 다르다는 것이다.

문제는 [표 6]과 같은 체계에서는 이체자는 가획자 아닌 것으로 오해를 준다는 점이다. 결국 이 세 자는 가획은 맞지만 다른 가획자와 원리나 특성이 다르다는 것이다. 곧 일반 가획자는 획이 한 획씩 더해짐에 따라 소리가 더 세지거나 강해지는데 ‘ㅅ’보다 한 획 더 가획한 ‘ㅅ’는 더 약한 울림소리이고 ‘ㄹ’은 같은 울림소리인 ‘ㄹ’에서 가획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두 획이 많은 데다가 반설음으로서의 소리 특성도 다르므로 짜임새를 달리한 것이다.¹⁴⁾

곧 ‘짜임새’라는 말은 박지홍(1988)에서의 ‘체계’나 ‘구조’와 기본 뜻은 같지만 그 체계나 구조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함의하는 말이다.

14) 필자가 김슬옹(2015: 141), 김슬옹(2017/2020) 등에서 ‘이체’를 “짜임새가 다르다”고 번역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이다. 곧 ‘體’를 역동적인 구조 과정을 반영하는 짜임새로 보아 ‘이체’를 “짜임새를 달리한다”는 의미로 번역하였다.

‘ㅇ’ 또한 가획 이전의 상형기본자를 아음 계열이 아닌 후음 계열에서 가져와 가획의 일반 원리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역시 짜임새를 달리한 것이다. 따라서 이체자를 가획자 범주 안에 넣되 기존의 가획자를 ‘일반 가획자’로 기존의 이체자를 ‘특별 가획자(이체자)’로 부를 것을 제안한다. 다만 이미 일반화된 용어를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이체자’는 괄호로 병기한다.

임용기(1999: 167)에서는 이체자를 가획자로 보고, ‘이체자’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다. 곧 “이른바 이체자라고 하는 ‘ㅇ, ㄹ, △’ 등은, 훈민정음 조성 17자에 대한 제자 방법이나 제자 과정을 고려하면, 이 글자들은 이체자가 아니다. 이것들은 모두 가획자이다. 다만 가획한 뜻이 여타의 가획자와 다르거나 없을 뿐이다. 곧 ‘ㅇ’에 대해서는 가획의 뜻이 다름을 “唯ㅇ爲異”라고 표현하고, 또 ‘ㄹ’과 ‘△’에 대해서는 기획한 뜻이 없음을 “無加畫之義焉”이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세 글자를 만든 방법을 이체라고 하거나, 그 글자들을 이체자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167쪽)라고 보았다.

그러나 가획자로 본 것은 옳지만 다른 가획자와 다른 점도 분명하므로 ‘이체자’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표 11]처럼 분류하기로 한다. [그림 3]은 어린이용 책에 적용해 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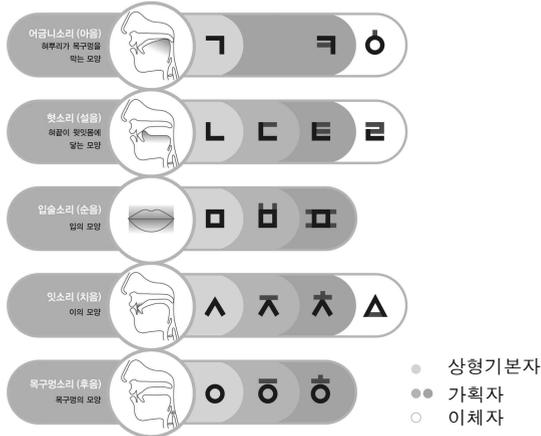
[표 11] 초성 기본자 17자의 제자 원리에 따른 새로운 배열표

갈래	상형기본자	가획자	
		일반 가획자	특별 가획자(이체자)
아음(牙音)	ㄱ(君, 군)	ㅋ(快, 켜)	ㅇ(業, 업)
설음(舌音)	ㄴ(那, 나)	ㄷ(斗, 두) ㅌ(吞, 툐)	
순음(唇音)	ㅁ(彌, 미)	ㅂ(擘, 뵵) ㅍ(漂, 표)	
치음(齒音)	ㅇ(戍, 순)	ㅈ(卽, 즉) ㅊ(侵, 침)	
후음(喉音)	ㅇ(欲, 옥)	ㅎ(挹, 읍) ㅎ(虛, 허)	
반설음(半舌音)			ㄹ(閔, 려)
반치음(半齒音)			△(穰, 상)

기본 17자 이외의 글자는 운용자로 부르기로 한다.

이러한 초성 기본자 17자를 제외한 나머지 초성자는 ‘운용자’ 또는 ‘운용 초성자’로 부르기로 한다.

[그림 3] 초성 17자 ‘이체자’ 재분류도 (김슬옹, 2015/2020: 50)



15세기 훈민정음 기본 자음자 17자의 제자 원리

이밖에 초성자로서의 합용병서자는 15세기에서 ‘ㅂ-’ 계열 2자 합용병서 4자, 3자 합용병서 2자, ‘ㅅ-’ 계열 네 자 모두 10자가 쓰였으나 해례본에서는 밑줄 그은 ‘ㅂ-’ 계열 세 자와 ‘ㅅ-’ 계열 한 자만 나온다.

(15) 가. ㅂ (ㅂ_ㅅ爲隻 [정음해례21ㄱ:3-5_합자해])

나. ㅅ (ㅅ_ㅅ爲隙之類 [정음해례21ㄱ:3-5_합자해])

ㅅ (ㅅ_ㅅ爲酉時之類 [정음해례21ㄴ:2-4_합자해])

(16) ㅅ (ㅅ_ㅅ爲地 [정음해례21ㄱ:3-5_합자해])

위아래로 이어쓰는 연서는 “병, 령”가 나오는데 ‘병’은 설명과 용례로, ‘령’은 설명으로만 나온다.

(17) 가. ○ 連書唇音之下，則爲唇輕音. [정음3ㄴ:6-7_어제예의] (○을 입술소리 아

래 이어 쓰면 입술가벼운소리(脣輕音)가 된다.)

나. ○連書脣音之下，則爲脣輕音者，以輕音脣乍合而喉聲多也. [정음해례4나: 3-5_제자해] (○을 입술소리 아래에 이어 쓰면 곧 입술가벼운소리(순경음)가 되는 것은 가벼운 소리는 입술이 잠깐 합쳐지면서 목구멍소리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18) 若欲備用，則依脣輕例，○連書ㄹ下，爲半舌輕音，舌乍附上脣. [정음해례22나: 7-8_합자해] (그러나 만약 갖추어 쓰고자 한다면 입술가벼운소리[순경음 ㄹ]의 예에 따라 ‘○’을 ‘ㄹ’ 아래 이어 쓰면 반혀가벼운소리[반설경음 ㄹ]가 되니, 혀를 살짝 윗잇몸에 댄다.)

이상 분류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2] 해례본에 나오는 초성자 운용자 갈래

갈래	병서			연서
	각자병서	합용병서		
		두자	세자	
이음	ㄱ			
설음	ㄲ			<ㄹ>
순음	ㅁ	ㅁㅁ	ㅁㅁ, ㅁㅁ	ㄹ
치음	ㄷ, ㅌ	ㄷ		
후음	ㅇ			
6자 *사용 예로만 나온 <oo> 포함 7자		4자		1자 *설명으로는 < >포함 2자
병서 12자(13자)			연서 2자	

* < >는 해례본에서 실제 설명이나 표기, 음가 예로 등장하지 않은 경우

3. 중성자 분류 맥락과 도표식 분류

3.1. 기본자 분류와 의미

중성 기본자 11자의 차례는 어디서든 (19)와 같이 처음 예의 방식 그대로 ‘상형기본자-초출자-재출자’ 순으로 되어 있다. [표 13]은 일반 배열 방식이고, [표 14]는 이 글에서의 대안 방식이다.

(19)

- . 如吞字中聲 [정음3ㄱ:2_어제예의]
- 一 . 如卽字中聲 [정음3ㄱ:3_어제예의]
- 丨 . 如侵字中聲 [정음3ㄱ:4_어제예의]
- ㄴ . 如洪字中聲 [정음3ㄱ:5_어제예의]
- ㅌ . 如覃字中聲 [정음3ㄱ:6_어제예의]
- ㄷ . 如君字中聲 [정음3ㄱ:7_어제예의]
- ㄷ . 如業字中聲 [정음3ㄴ:1_어제예의]
- ㅁ . 如欲字中聲 [정음3ㄴ:2_어제예의]
- ㅂ . 如穰字中聲 [정음3ㄴ:3_어제예의]
- ㅅ . 如戊字中聲 [정음3ㄴ:4_어제예의]
- ㅈ . 如弊字中聲 [정음3ㄴ:5_어제예의]

[표 13] 중성 11글자의 모양과 소리 (나찬연, 2012: 72쪽)

	상형자			초출자				재출자			
글꼴	•	一	丨	ㄴ	ㅌ	ㄷ	ㄷ	ㅁ	ㅂ	ㅅ	ㅈ
글자의 소리	吞 (툰)	卽 (즉)	侵 (침)	洪 (홍)	覃 (탐)	君 (군)	業 (업)	欲 (욕)	穰 (상)	戊 (술)	弊 (별)

[표 14] 중성 기본자 글꼴과 예시

갈래	음양	글꼴	발음과 예
초출자	양성	ㄴ	洪(홍)
		ㅌ	覃(탐)
	음성	ㄷ	君(군)
		ㄷ	業(업)
재출자	양성	ㅁ	欲(욕)
		ㅂ	穰(상)
	음성	ㅅ	戊(술)
		ㅈ	弊(별)
상형기본자	양성	•	吞(툰)
	음성	一	卽(즉)
	양음성(중성)	丨	侵(침)

중성 기본자에서 ‘丨’는 그동안 양성과 음성도 아닌 ‘중간’의 의미를 부여하여 ‘중성’이라고 일컬어 왔으나 해례본에 그런 용어가 나오지도 않고 다음과 같이 ‘동정(動靜)’ 곧 ‘양음성’의 의미를 부여했다.

(20) 가. 動者, 天也. 靜者, 地也. [정음해례8ㄱ:4-5_제자해] (움직이는 것은 하늘이요, 머무는 것은 땅이다.)

나. 兼乎動靜者, 人也. [정음해례8ㄱ:5_제자해] (움직임과 멈춤을 겸한 것은 사람이다.)

다만 ‘중성’이란 용어가 굳어진 관습을 고려하여 괄호로 처리하였다. ‘양음성’으로 일컬은 근거는 (20)과 같다. 곧 ‘丨’는 사람을 상형한 글자인 데 ‘사람’은 양성인 하늘과 음성인 땅을 겸한다고 하였다.

중성 기본자 11자를 ‘음/양’을 기준으로 통합 분류할 때는 상형기본자와 합성자 사이를 [표 16처럼] 띄어 그려야 한다(김슬옹, 2018: 50). 그냥 합칠 경우 합성자가 ‘·, —’만을 합성한 것처럼 보여 초출자와 재출자가 ‘천지인’ 세 자를 합성해서 만들었다는 취지를 살릴 수 없다.

[표 15] 중성 기본자 11자 음양 분류표 (A안)

상형기본자		합성자	
		초출자	재출자
양성	·	ㅡ 丨	ㅡ 丨 丨
음성	—	ㄷ 丨	ㄷ 丨 丨
양음성(중성)	丨		
3자		4자	4자

[표 16] 중성 기본자 11자 음양 분류표 (B안)

상형기본자		합성자	
		초출자	재출자
양성	·	ㅡ 丨	ㅡ 丨 丨
음성	—	ㄷ 丨	ㄷ 丨 丨
양음성(중성)	丨		
3자		4자	4자

초출자와 재출자를 ‘합성자’로 명명한 것은 다음과 같이 해례본에서 ‘合而成(합이성)’이라고 표현한 데서 따온 것이다.

- (21)  與  同而口聲, 其形則  與  合而成, 取天地初交之義也. [정음해례5 1:2-4_제자해] (는 와 같으나 입을 오픈리며 그 모양이 가 와 합해서 이루어진 것은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사귀는 뜻이다.)

물론 어느 심사의원 지적처럼 ‘合而成’이라는 표현은 음절자 합성에서도 다음과 같이 쓰였다.

- (22) 가. 凡字必合而成音. [정음4 1:3-4_어제예의] 무릇 글자는 반드시 합하여야만 음절이 이루어진다.
나. 蓋字韻之要, 在於中聲, 初終合而成音. [정음해례8 1:3-6_제자해] 대개 글자 소리의 핵심은 중성에 있으니, 초성·중성과 합하여 음절을 이룬다.
- (23) 以初中終合成之字言之, 亦有動靜互根陰陽交變之義焉. [정음해례8 1:3-4_제자해] 초성, 중성, 종성이 합하여 이루어진 글자를 말할 것 같으면, 또한 움직임과 고요함이 서로 뿌리가 되어 음과 양이 서로 바뀌는 뜻이 있다.

그러나 음절자 방식에서의 ‘合而成’은 초출자, 재출자에서 쓰인 맥락과 다르다. “合而成音, 合成之字”와 같이 4자 구성에서의 어근처럼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설령 음절자 구성에서 ‘合成’을 인정하면 ‘합성1, 합성2’와 같이 다의어로 보면 된다. ‘합용’이 초성자와 중성자에 모두 쓰여 ‘합용1: 초성자 합용, 합용2: 중성자 합용’과 같이 다의어로 보면 되기 때문이다.

3.2. 중성 운용자 분류에 대하여

일단 중성 기본자 11자를 응용하여 두 자 이상 합친 글자를 어떻게 부를까가 문제다. 초성자에서 기본자 이외의 초성자를 ‘기본자’에 대비하여 ‘운용자’로 부르기로 하였으므로 중성자에서도 ‘운용자’로 부르기로 한다.

자를 제시하고 있다.

- (26) 一字中聲之與 | 相合者四, **이 어 의 비 기 세 씨 비 꺾 제** 是也. [정음해례16나:2-4_중성해](한 글자로 된 중성자가 | 와 서로 어울린 것이 열이니 “**이 어 의 비 기 세 씨 비 꺾 제**”가 그것이다.)

해례본 용어를 그대로 쓴다면 이를 ‘중성 기본자와 | 의 상합자’이다.

- (27) 二字中聲之與 | 相合者四, **새 제 뺨 꺾** 也. [정음해례16나:4-5_중성해](중현 12 두 글자로 된 중성자가 | 와 서로 어울린 것은 넷이니 “**새 제 뺨 꺾**”가 그것이다.)

이 글자들은 동출합용자와 |의 합용이므로 ‘동출합용자와 |의 상합자’이다. 결국 |상합자는 중성 기본자와의 상합자와 동출합용자와의 상합자 두 갈래가 있는 것이다. 중성해 설명에는 나오지 않지만 합자해엿허 다음과 같이 특이 |합용자를 설명하고 있다.

- (28) 가. • **一起 |** 聲, 於國語無用. 兒童之言, 邊野之語, 或有之, 當合二字而用, 如**기고**之類. [정음해례22나:8_23나:3_합자해](• **一가 |**에서 시작되는 소리는 나라말에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아이들 말이나 변두리 시골말에는 드물게 있으니 마땅히 두 글자를 합하여 나타내려 할 때에는 “**기고**” 따위와 같이 쓴다.

15) 어느 심사위원께서 “<합자해>에 나와 있듯이 ‘합용’이라는 용어 또한 중성자에 국한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초성자, 중성자, 중성자를 구분하지 않고 글자를 합쳐 쓰는 경우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이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다. 옳은 지적이지만 다의어로 보면 된다. 초성자에서는 ‘합용 병서’ 등과 같이 복합어로 혼동될 염려가 없고, 해례본에서 ‘이자합용(二字合用)’이라고 실제 쓰고 있으니 그대로 쓰지 않을 이유도 없다.

이를 종합해 보면 [표 17]과 같다.

[표 17] 운용자(운용 중성자) 분류

		2자 합용자	3자 합용자
동출합용자		상합자	
		중성 기본자 10자와 의 상합자	동출합용자와 의 상합자
양성	ㅅㅅ	이 씨이 씨이	씨씨
음성	ㅅㅅ	이 씨이 씨이	씨씨
		* 특이 합용자(! !)	
4자		10자(12자)	4자
18자(특이 합용자 포함 20자)			

4. 맺음말

이 글에서는 기존의 관습적인 15세기 초성자, 중성자 분류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분류는 분류의 기본 원칙을 일부 어겨 비합리적 요소가 생겨 해례본 정신에 어긋난다. 《훈민정음》 해례본 교육을 위해 해례본의 분류 문제와 양상을 국어교육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결과와 대안을 제시한다.

1) 상형의 바탕이 되는 초성자 5자와 중성자 3자 명칭은 각각 ‘기본자’라 부르기보다 ‘상형기본자’라고 불러야 한다.

2) 초성자에서 가획자와 이체자를 배타적으로 분류하지 말고 이체자를 가획자에 포함시키고 기존의 가획자는 일반 가획자로 이체자는 특별 가획자(이체자)로 하위 분류해야 한다.

3) 초성자, 중성자 분류에 쓰이는 훈민정음 표기 한자음은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초성자, 중성자 전체 분류에서 해례본만을 바탕으로 분류하는 기본 원칙이 필요하며 언해본은 부차적으로 고려한다.

5) 초성자에서 상형기본자 외 글자는 ‘운용자’로, 중성자에서 상형기본

자의 8자는 ‘합성자’로 그 외 확장 글자는 ‘합용자’로 부른다.

6) 실제 분류 결과와 대안 제시는 다음 종합표로 대신한다.*

[표 18] 훈민정음 해례본에서의 초성자 갈래

기본자(기본 초성자)				운용자					
상형기본자		가획자		병서			연서		
		일반 가획자	특별 가획자 (이체자)	각자병서	합용병서				
					두자	세자			
아음	ㄱ	ㅋ	ㅇ	ㄱ					
설음	ㄴ	ㄷ ㅌ	ㄹ	ㄷ			<ㄹ>		
순음	ㅁ	ㅂ ㅃ		ㅃ	ㅃㅅ	ㅃㅅ, ㅃㅆ	ㅃ		
치음	ㅅ	ㅈ ㅉ	ㅊ	ㅈ, ㅉ	ㅈㅅ				
후음	ㅇ	ㅇ ㅎ		ㅎ, <ㅇ>					
5자		9자		3자		4자		1자 *설명으로만 나온 <ㄹ> 포함 2자	
기본 초성자 17자				병서 10자(11자)				연서 2자	
초성 23자(<ㅇ> 포함 24자)						5(<ㄹ> 포함 6자)			
28자(<ㅇ>, <ㄹ> 포함 30자)									

[표 19] 훈민정음 해례본에서의 중성자 갈래

기본자(기본 중성자)				운용자(운용 중성자)					
상형기본자		합성자		동출 합용자	상합자				
		초출자	재출자		기본 중성자와 의 상합자		동출합용자와 의 상합자		
					두자	세자			
양성	·	ㅁ ㅂ	ㅃ ㅅ	ㅃㅅ	이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음성	—	ㅁ ㅂ	ㅃ ㅅ	ㅃ ㅅ	이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양음성					* 기타: 특이 합용자(!)				
3자		4자		4자		10자		4자	
기본 중성자 11자				18자					
29자 / 31자(특이 합용자 ! 포함)									

* 이 논문은 2021년 3월 31일에 접수하여 2021년 4월 29일에 심사를 완료하고 2021년 5월 24일 게재를 확정함.

<참고 문헌>

- 간송미술문화재단 편(2015), 『訓民正音』, 교보문고.
- 강신항(1987/2003, 수정증보),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강창석(2014), 「『諺文字母』의 작성 주체와 시기에 대하여」, 『언어와 정보사회』 22, 서강대 언어정보연구소, 27-52쪽.
- 김석득(2019), 『우리말 연구사: 언어관과 사조로 본 발전사』, 태학사.
- 김슬옹(2011), 『세종대왕과 훈민정음학』, 지식산업사.
- 김슬옹(2015), 『훈민정음 해례본: 한글의 탄생과 역사』(간송본 복간본 해제), 교보문고.
- 김슬옹 글, 강수현 그림(2015/2020), 『누구나 알아야 할 훈민정음, 한글이야기 28』, 글누림.
- 김슬옹(2017), 「『훈민정음』 해례본 연구와 강독용 교재 구성과 실제」, 『한말연구』 43호, 한말연구학회, 65-92쪽.
- 김슬옹(2017/2020), 『훈민정음 해례본 입체강독본(개정증보)』, 박이정.
- 김슬옹(2018), 「한글날 배포 소책자 제작 과정과 교육적 의의」, 『문법교육』 33호, 한국문법교육학회, 31-70쪽.
- 김슬옹(2020), 「『훈민정음』 해례본의 역주 방법론 정립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나찬연(2012), 『훈민정음의 이해』, 월인.
- 박지홍(1988), 「국역 훈민정음」, 신상순이돈주이환목 편(1988), 『훈민정음의 이해』, 한신문화사.
- 박창원(2005), 『훈민정음』, 신구문화사.
- 백두현(2018), 「훈민정음의 사용·보급정책에 관한 연구의 성과와 방향」, 이현희 외(2018), 『훈민정음 연구의 성과와 전망』 I (국내), 국립한글박물관, 138-190쪽.
- 이동림(1975), 「훈민정음의 창제경위에 대하여: ‘언문자모 27자’는 최초 원안이다」, 『국어국문학 논문집』 9·10, 동국대학교, 7-22쪽.
- 이현희 외(2014), 『『訓民正音』의 한 이해』, 역락.
- 임용기(1999), 「이른바 이체자 ‘ㅇ. ㄹ. ㅅ’의 제자방법에 대한 반성」, 『새국어생활』 9권 4호, 161-167쪽.

- 정우영(2001), 「《訓民正音》 한문본의 낙장 복원에 대한 재론」, 『국어국문학』 129, 국어국문학회, 191-227쪽.
- 정우영(2016), 「훈민정음 초성 제자원리의 ‘이체자(異體字)’ 관련 문제점 분석」, 『국어학』 80집, 국어학회, 35-75쪽.
- 정우영(2018), 「《훈민정음》 해례본과 언해본의 판본서지, 복원연구의회고와 전망」, 이현희 외(2018), 『훈민정음 연구의 성과와 전망』 I(국내), 국립한글박물관, 18-94쪽.
- 한재영 외(2017),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정본 제작 연구』, 문화재청.
- 홍기문(1946), 『正音發達史』 상·하 합본, 서울신문사 출판국.¹⁷⁾
- 홍현보(2019), 『언문』, 이회.

17) 주혜서: 홍기문 원저/이상규·천명희 증보(2016), 『증보 정음발달사』, 역락.

<국문 초록>

이 연구에서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초성자, 중성자 분류를 총체적으로 밝히고 도표식 분류 대안을 제시하였다. 도표식 분류는 훈민정음 문자 이해와 교육에 매우 유용한 도구이기에 좀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분류 관점과 내용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상형의 바탕이 되는 초성자 5자와 중성자 3자 명칭은 기존의 ‘기본자’라는 명칭보다는 ‘상형기본자’라고 불러야 훈민정음 28자(초성자 17, 중성자 11)를 가리키는 ‘기본자’와의 혼동을 피할 수 있다. 둘째, 초성자든 중성자든 ‘상형기본자’ 외 글자는 ‘운용자’로 일컫는다. 셋째, 초성자에서 가획자와 이체자를 배타적으로 분류하지 말고 이체자를 가획자에 포함시키고 기존의 가획자는 일반 가획자로 이체자는 특별 가획자(이체자)로 하위 분류해야 한다. 넷째, 초성자, 중성자 분류에 쓰이는 훈민정음 표기 한자음은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초성자, 중성자 전체 분류에서 해례본만을 바탕으로 분류하는 기본 원칙이 필요하며 언해본은 부차적으로 고려한다.

□ 주제어

훈민정음, 훈민정음 해례본, 초성자 분류, 중성자 분류, 훈민정음 교육

<Abstract>

Consonant and Vowel Classification Contexts in *Hunminjeongeum(1446)* Haeryebon and Alternative Classification in Diagrammatic Form

Kim Seulong

In this study, the classification of the initial consonant letter and the middle vowel letter in the text of *Hunminjeongeum*(훈민정음 해례본) was comprehensively clarified and an alternative to the classification of the chart type was suggested. As tabular classification is an extremely useful tool for understanding as well as teaching Hunminjeongeum characters(Hangeul in 15th century), a more accurate and efficient classification perspective and content should be applied.

Accordingly, the following alternatives were suggested.

First, the names of the five initial characters and the three middle characters, which are the basis of the hieroglyph, should be called “basic hieroglyphics” instead of the conventional “basic character”, avoid confusion. Second, any letters other than the “hieroglyphic basic character”, whether it be a initial characters or a middle characters, are referred to as “management characters”. Third, in the initial letters classification, letters with strokes and letters of different shapes are not classified exclusively. Instead, letters with strokes in the existing classification should be

classified as general Letters with strokes, and letters of different shapes should be subclassed as special Letters with strokes. Fourth, the Chinese consonants used in the classification of the first and the middle letters should not be applied to Dongguk-Jeong-un-style Chinese consonants. Fifth, in the entire classification of the first and last consonants, a basic principle of classifying only the Haerye text(1446) is necessary, and the Korean translation version of *Hunminjeongeum*(훈민정음 언해본) is considered secondary.

□ **Keywords**

Hunminjeongeum, *Hunminjeongeum* haeryebon,
the initial consonant letter classification,
the middle vowel letter classification, Hunminjeongeum education